

고물가에 서민층만 씹씹이 줄었다

작년 4분기 소득상위 20% 지출 ↑·하위 20% ↓

연금 등 공적 이전 증가 영향 분배지표 소폭 개선

소득상위 20% 가구의 소비 지출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하위 20% 가구는 오히려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서민층부터 허리띠를 졸라맨 모습이다. 각종 연금과 사회수혜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이 포함된 공적 이전 증가의 영향으로 분배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소비 줄인 서민 가구…월평균 29만 원 '적자살림'

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소득하위 20%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

근로소득(1.6%)과 이전소득(9.0%)은 증가했지만, 사업소득(-7.4%)과 재산소득(-5.2%)은 감소했다.

처분 가능 소득 또한 99만 1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

이처럼 소득과 소비 여력이 늘었지만, 실제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1분위 가구의 가계지출은 147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5% 감소했다.

전체 소득분위 중 4분기 가계지출이 감소한 분위는 1분위가 유일했다.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도 1분위뿐이었다.

1분위 가구는 월평균 29만 1천원의 적자 살림을 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적

자액은 29.4%였다.

◇고소득 가구는 소득·지출 동반 증가…공적 이전 55% ↑

고소득 가구인 5분위 가구의 4분기 월 평균 소득은 1천80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 늘었다. 특히 공적 이전이 전년 동기보다 5.3

% 증가했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부모 급여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계지출은 721만 7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0% 늘어 모든 분위 증가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49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늘었다. 평균소비성향은 57.8%로 2.9%p 상승했다.

◇상·하위 소득격차 5.53→5.30배…“정부 정책 효과”

1분위 처분 가능 소득이 5분위 처분

가능 소득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분배 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1년 전(5.53배)보다 축소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다.

통상적으로 배율이 작아진다는 것은 빈부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분배 개선의 의미를 지닌다. /연합뉴스



어린이·생활용품 등 42개 제품 리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천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연구원들이 학용품, 완구 등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지난달 7천억여원 늘어…8개월 만에 최소폭

주요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7천억 원 늘어난 데 그쳤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금리도 슬금슬금 올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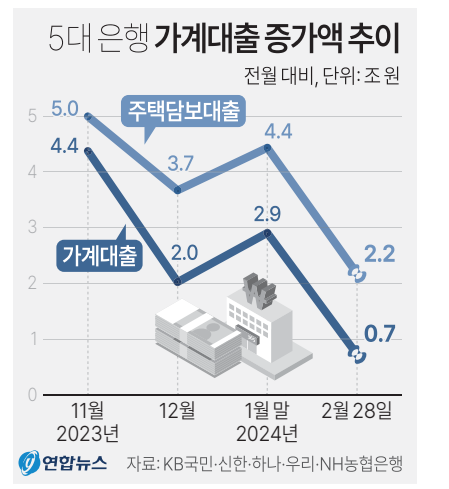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달 2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66조 371억 원으로 지난 1월 말(665조 3천 143억 원)보다 7천 228억 원 늘었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29일 수치가 빠져있긴 하지만, 월간 증가 폭은 1월(2조 9천 49억 원)보다 축소됐으며 지난해 6월(6천 332억 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 1천 744억 원(534조 3천 251억 원→536조 4천 995억 원) 늘었다. 증가 폭이 지난 1월(4조 4천 329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신용대출 역시 1조 954억 원 줄어들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고



금리 속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 서 대출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린 탓에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0.05-0.20%포인트(p)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품별로 0.10-0.30%p, 국민은행도 지난달 29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0.04%p 올렸다.

일부 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면서, 실제로 최근 은행권 대출 금리는 지표금리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기업 67% “신규채용 계획있다”…경력직 선호도 강화

경총, 500개사 실태조사…기업 61% “수시 채용만 실시”

국내 기업 67%가량은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 사이에서 경력직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고, 채용 시 중요 평가요소로는 ‘직무 경험’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4년 신규 채용 실태조사*를 통한 결과, 응답 기업 66%가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0~29일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이어 신규 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2.2%,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1.0%였다.

신규 채용 실시 예정 기업 중 57.5%는 올해 채용 규모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작년보다 확대’는 14.7%, ‘작년보다 축소’는 8.7%로 각각 집계됐다.

‘신규 채용 계획은 있지만 규모 미확정’이라는 응답은 19.2%였다. 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채용 규모 미확정’ 응답 비중이 높았다.

신규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수시 채용만 실시’라는 응답이 60.8%로 가장 많았다. ‘정기 공채와 수시 채용 병행

’은 32.2%, ‘정기 공채만 실시’는 7.2%의 응답률을 보였다.

수시 채용의 경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수시 채용만 실시’라고 답한 비중이 높았다. 또 채용 계획 결정 시점을 묻는 항목에서는 62.0%가 ‘특정 시점 없이 수시로 파악·결정’이라고 답했다.

신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는 응답 기업의 74.6%가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을 꼽았다. 이어 ‘인성과 태도’(9.4%), ‘직무 관련 전공’(6.2%), ‘직무 관련 자격증’(5.4%) 등의 순이었다.

올해 채용시장에서 최대 변화 전망을 묻는 문항(복수응답)에서는 ‘경력

직 선호도 강화’가 56.8%로 가장 많았고, ‘수시 채용 증가’가 응답률 42.2%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 1109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10 12 13 19 33 40 / 보너스 2		
1등	1,584,352,875	6개 숫자 일치
2등	53,440,474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341,202	5개 숫자 일치
4등	50,000	4개 숫자 일치
5등	5,000	3개 숫자 일치

공인중개사·PB 80% “올해 집값 하락”

공인중개사나 자산관리전문가(PB) 10명 가운데 8명은 올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3일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4.6% 하락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2.4%) 이후 최대 낙폭이다.

월평균 주택 거래량(4만 7천호)은 2022년보다 11% 늘었지만, 2017~2021년 월 평균(8만 2천호)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셋값 역시 지난해 전국에서 5.5%, 수도권에서 6.4% 낮아졌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올해 1월~12월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172명), 전국 공인중개사(523명), KB PB(73명)를 상대로 진행

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올해 주택매매 가격 전망을 묻자 전문가의 74%, 공인중개사의 79%, PB의 79%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의 28%, 공인중개사의 23%, PB의 21%가 낙폭으로 ‘-3~-1%’를 예상했다. PB 사이에서는 ‘-5~-3%’(27%) 전망이 ‘-3~-1%’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 대한 전문가(하락 전망 비율 88%)의 시각이 수도권(66%)보다 더 비관적이었다.

주택 매매 경기 최저점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가의 50%, 공인중개사의 59%가 올해(2024년)를 꼽았다.

올해 주택 경기 회복을 결정할 요인은 전문가, 공인중개사, PB 그룹에서 모두 ‘금리 인하’와 ‘대출 지원·규제 완화’가 각 1.2순위로 지목됐다. /연합뉴스

<h2 style="text-align: center;">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 2)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 3) 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 4) 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 5)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 	<h2 style="text-align: center;">상가 매매 (상무지구)</h2> <p>▶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p> <p>유형가능 (룸, 노래홀, 홀덱)</p> <p>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p> <p>★ 전용 100평 ★ (분양160평)</p> <p>(보3천, 월수익 350만)</p> <p>▶ 시세 - 13억</p> <p>▶ 급매 - 7억 (용4억)</p>	<h2 style="text-align: center;">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h2>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style="text-align: center;">▶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 전남</p> <p>광산구 신항동 (상가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3억6천</p> <p>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8억3천</p> <p>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 39억 → 최저가 27억</p> <p>북구 용봉동 (카센터)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p> <p>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p> <p>광산구 비아동 (토지, 446평) ▶ 감정가 11억6천 → 최저가 9억3천</p> <p>광산구 도산동 (토지, 94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4천</p> <p>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26억</p>
<h1>010-6670-9800</h1>	<h1>062-382-5500</h1>	